

# 종교의 엄숙함도 '그' 앞에선 조롱거리



## 상상상극, 그 역동과 균형 '애니메이션과의 대화'

〈보왕삼매론〉에는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세상을 살아감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말라' '일을 계획함에 쉽게 이루기를 바라지 말라'고 말한다. 즉 고통과 즐거움이 결국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모든 것이 빈틈없이 계획대로만 이뤄진다면 좋겠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어디서 무슨 일이 갑자기 생길지 모른다. 그것이 우리네 인생이다. 만화에는 이런 '뜻밖의 일'들이 기상천외하게 일어난다. 허를 찌르는 만화의 반전과 탈 논리는 노자의 '무위무불위(無爲無不爲)'를 떠올리게 한다.

7080세대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줬던 '꺼비' '독고탁' '까치와 업지' 서부터 요즘 극장가를 주름잡는 3D 애니메이션 영화들까지. 만화와 애니메이션은 사람들에게 항상 상상의 세계로 통하는 문이었다.

만화와 애니메이션은 필연보단 우연을, 논리보단 역설을, 상상보다는 상상을 말하며 뜻밖의 만남을 만들어주는 장소가 됐고, 설마, 설마 하는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만화나 애니메이션이 우리 삶 속에 너무 익숙하고 편안하게만 다가와 그것들에 대한 진지

한 얘기를 논해본 적이 거의 없다. 단지 움직이지 않는 것을 움직이게 하고, 현실에선 이뤄지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가끔 웃기는 존재로만 여겼다. 20년 동안 현장에서 TV 시리즈 등 애니메이션,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창작해 온 저자는 만화·애니메이션 안에도 시대의 화두를 푸는 해답이 있다고 제시했다.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그저 '아이들이 보는 것' '웃기는 것' '극장이나 TV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여기면 그 속의 거대한 스펙트럼을 발견하기 어렵다. 책은 애니메이션 전반의 문제를 폭넓게 건드리며, 애니메이션 본질에 접근하고 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을 움직이게 한다'는 단순한 기법적인 문제보다는 애니메이션의 내용, 형식, 기법, 재료, 감상 등의 다양한 관점으로 시대의 화두와 애니메이션을 연계해 바라보았다.

저자는 우선 철학자와 만화가는 우리가 일상에서 지나치기 쉬운 당연한 것들을 그냥 지나치기 않는다는 점을 공통점으로 들며, 당연한 것에 질문을 던지면 철학이 되고, 당연한 것에 진지하게 태클을 걸면 만화가 된다고 말한다.

예로, 귀여운 파란 해달이 등장하는 만화 '보노보노'에서는 쉽게 풀리지 않을 철학적 질문들도 쉽게 던진다. "너부리야, 난 왜 곤란해 하는 걸까." "보노보노, 곤란해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해서 곤란한



거야. 살아 있는 한 절대 곤란한 거야. 곤란하지 않게 사는 방법 따윈 절대 없어." 이 만화에서는 이해력이 부족하고 굼떠서 순진해 보이는 보노보노와 성질 급하고 거칠지만 속성 많은 너부리, 간죽거리라는 포로리가 만나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아무렇지

도 않게 주고받으며 일상의 무게를 덜어준다.

또한 아리폴던 감독은 '바시르와 왈츠를'에서 전쟁과 정치, 종교, 학살 등의 무거운 주제를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다뤘으며, 왕수보는 개인사와 중국 현대사를 엮어 '천안문 광장의 태양'을, 마르잔 사트라피 감독은 이란의 역사와 현실을 '페르세 폴리스'로 탄생시켰다.

예술, 종교, 철학, 과학 등이 삶의 문제들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답을 구하려 애쓸 때 만화와 애니메이션은 특유의 익살로 간죽거리다. 만화나 애니메이션은 철학의 정리들을 들쭉시키고, 과학의 가설과 결론을 의심하며 뒤섞어 버린다. 또한 종교의 엄숙함과 예술의 권위마저도 조롱한다. 저자는 이러한 만화와 애니메이션 특징에 대해 "뜻밖의 만남과 영원한 호기심의 세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책은 애니메이션 전공 서적도 아니고, 교양서적도 아니다. 그렇다고 미학 책도 아니며 테크닉 북도 아니다. 단지 애니메이션과 애니메이션이 아닌 것들의 대화, 애니메이션이 담고 있는 넓은 스펙트럼, 대립된 극단 사이의 대화를 이야기한다.

즉, 상상은 서로를 길러주며 상극은 생산적 힘을 갖게 하는 삶의 절대적 필요성이라는 점을 내세워 '상상상극'이라는 또 다른 주제를 말한다.

애니메이션과의 대화 | 이정민 지음 | 종이거울 | 1만5000원  
이은정 기자

## 머나먼 이국땅에서 전하는 부처님의 법향



LA에서 온 편지 | 이원익 지음 | 불교시대사 | 1만2000원

불교에 대한 사람들의 선입견 중 대표적인 것이 '불교는 어렵다'고 느끼는 것. 불교가 어렵게 느껴지는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불교의 용어들이 어려운 말로 적혀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런 문제의식을 느끼고 불교에 대해 쉽게 정리된 책들이 많이 출간되고 있지만, 머나먼 이국땅에서 머나먼 머나먼 구하기 힘들다.

30여 년 동안 미국 LA에서 생활해온 저자는 쉽고 현실성 있게 설명해 놓은 불교 서적을 찾다가 도무지 책을 구하기가 어렵자, 자신이 직접 쉬운 말로 부처님의 법향을 전했다.

저자는 미국에 건너가 생활하며 느낀 점들과 불교에 대한 생각들을 틈틈이 적어 기록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의 옆에 있는 가족, 친구, 집 등에 대한 소중함을 너무 당연시 하게 여기며 살아간다. 그의 진솔한 삶과 불교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 옆에 항상 불교가 있지만 그 귀함을 느끼고 살았는지에 대한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한다.

# 전철안 낯선 여인이 자꾸 신경 쓰이는 이유

## '생각 버리기 연습'의 저자 코이케 류노스케의 '화내지 않는 연습'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드러내진 않지만 아침부터 밤까지 빈번하게 마음속에 화를 담고 살아간다. 식당에서 주문을 받는 점원의 불량한 태도를 볼 때, 새치기를 하는 사람을 볼 때, 조용한 지하철 안에서 이어폰 바깥으로 새어나오는 수준 낮은 음악 소리를 들을 때 등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고 화를 내며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한다. 그 결과, 몸과 마음은 쇠약해지고 불쾌해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아무리 지위와 명성이 높고 수입이 많아도 마음이 제맛대로 불쾌해지면, 죽을 때까지 결코 행복

해 질 수 없다.

베스트셀러 〈생각 버리기 연습〉의 저자인 코이케 류노스케 스님은 우리가 얼마나 분노에 휘둘리고 있는지, 이러한 분노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행복을 방해하는지를 바로 알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코이케 스님은 최근 출간한 〈화내지 않는 연습〉에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화를 내게 만드는 마음의 구조를 소개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코이케 스님은 화를 일으키는 마음의 구조는 '자기중심적 해석'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꾸만 화를 내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를 새롭게 편집하는 마음의 버릇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전철에서 우연히 눈에 띈 낯선 여인이 웬지 자꾸 신경이 쓰이는 장면을 예로 들어보자. 전철 안에서는 차창 밖의 풍경, 전철이 달릴 때 나는 소리, 사람들이 풍기는 독특한 냄새, 냉방 온도, 사람들의 대화 등 온갖 정보가 넘쳐난다. 그런데도 다른 모든 정보는 걸러지고 낯선 여인에게 신경이 쓰이는 것은 그 정보가 주변의 정보 중에서 가장 강하게 욕망이나 분노를 자극하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고급 웃음'을 입고 있는 걸 보니 상류층의 여자군. 그리고 보니 이

전에 상류층 여자에게 무시당한 적이 있어. 웬지 불쾌한 걸.'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아주 재빠르게 현실의 여인을 무시한 채 '웬지 불쾌해'라는 머릿속 스토리를 쓰는 것이다.

코이케 스님은 화를 만드는 마음의 구조가 너무나 순간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일련의 편집과 정에서 최대한 빨리 스토리가 전개되지 못하도록 중단시켜야만,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규칙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듣기 싫은 말'도 결국에는 '단순한 소리'일 뿐이라는 마음의 규칙을 정한다. 그러면 자신의 마음을 울격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이야기에 자기중심적 정보를 덧붙이지 않고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코이케 스님은 6근(六根)에 의해 자신에게 입수되는 정보의 편집을 막으라고 강조한다.

이 책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화내지 않는 연습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답답하고 반복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한 삶에 한걸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화내지 않는 연습 | 코이케 류노스케 지음 | 양정출판 | 1만2000원  
이은정 기자

##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1기도	법륜	정토
2	소설 무소유	정찬주	열림원
3	성철선사상	도대현	운주사
4	붓다의 치명적 농담	한형조	문학동네
5	행복한 기원	보경	조화로운살
6	대장경, 천 년의 지혜를 담은 그곳	오윤희	불광출판사
7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8	선방일기	지혜	불광출판사
9	백일법문(상)	성철	장경각
10	왕초보 천수경박사 되다	성법	민족사

※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 '반야심경'의 비하인드 그 비밀 이야기를 밝히다



왕초보 반야심경 박사되다 | 김명우 지음 | 민족사 | 9500원

초기불교의 대표적 교리인 5온, 4성제, 12처, 18계, 12연기 등을 모두 살펴볼 수 있는 〈반야심경〉이 새롭게 출간됐다. 책은 민족사에서 내놓은 왕초보시리즈 중 한권으로, 대승불교의 가장 대표적인 〈반야심경〉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전하면서, 초기불교의 중요 교리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반야심경〉은 공(空)사상을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그 깊은 도리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저자는 〈반야심경〉에 대해 우리가 모르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낱알이 파헤치고 있다. 책에는 공의 도리나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도리, 반야의 의미 등을 총망라해 옛 성현들의 일화, 자신의 체험 등을 빌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산스크리트, 티베트, 여러 가지 한문본 등을 비교해 〈반야심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다.

# (奉) 제 1회 룸비니 세계 불교문화 올림픽 (行)

**참가 국가** (46개국 및 세계 불교단체)

- 네팔 불교연합회
- 한국 불교 단체 총연합회
- 범 종단 중정 및 총무원장 연합
- 세계 불교법왕청 평화재단
- 스리랑카 불교연합회
- 중화민국 불교연합회
- 독일 불교연합회
- 중국 불교연합회
- 인도 불교연합회
- 태국 불교연합회
- 캄보디아 불교연합회
- 일본 불교연합회
- 미얀마 불교연합회
- 싱가포르 불교연합회
- 오스트레일리아 불교연합회
- 오스트리아 불교연합회
- 인도네시아 불교연합회
- 말레이시아 불교연합회
- 티베트 불교연합회
- 부탄 불교연합회
- 프랑스 불교연합회
- 미국 불교연합회
- 세계 불교고승가연합회
- 유네스코 불교문화위원회
- 각국 불교연합회, 등

**명예대회장 / 네팔 부통령**  
**대회장 / 한국 대표**  
**한국조직위원장 / 범 종단 대표**    **네팔조직위원장 / 네팔불교 연합대표**

**행사내용** (참가국 및 참가단체 종목별 경연)

■ 의식 : 영산재, 수륙재, 예불 등 고유불교 의식	■ 의상 : 출가자, 재가자 의복 등 불교의상소개
■ 음식 : 민족 전통불교 음식 소개	■ 음악 : 영성음악, 찬불가, 독창, 합창
■ 무용 : 전통무, 고전무, 살풀이, 사물놀이	■ 영상 : 불교영화 및 다큐
■ 무술 : 불교전통무예	■ 미술 : 탭화, 조각, 불상(작품제출)
■ 경전 : 독송 및 사경	

★ 세계 불교문화올림픽 한국대표단 추천중  
★ 대회상 : 금·은·동메달수여 (상위입상자 대상)

**불교문화교류 및 발굴**

1. 무차선 세계대회
2. 세계 불교연합 대법회
3. 불교문화엑스포 (네팔,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인도 등)
4. 유네스코 주관 세계불교 고미술 및 문화재보존 세미나
5. 탄생불 불상조성 기공식

■ 주최 : 네팔관광부, (사)한국불교단체 총연합회    ■ 주관 : 세계불교문화 페스티벌(올림픽)조직위원회  
■ 후원 : 네팔관광청, 룸비니 개발위원회, NRN세계봉사단체, 네팔불교협회, 네팔불교청년회, 세계 고승승가연합회, 세계 불교법왕청 평화재단, 불교TV방송  
■ 봉사단체 : 세계불교문화올림픽봉사단 (WBOV) <http://cafe.daum.net/wbov> [자원봉사단 신청 접수]  
■ 일시 : 불기2555년 (2011) 9월 21일 ~ 2011년 10월 11일    ■ 개막식 : 9월21일    ■ 폐막식 : 10월 11일  
■ 장소 : 네팔 룸비니 부처님 탄생지 (동참인원 약 10만명)

**모 집**

- 올림픽공식 후원사 및 협력업체
- 참가 대표단 및 성지 순례단 3,000명
- 불교 EXPO 박람회 기업체 500명

**세계불교문화올림픽 추진위원회**

- 한국본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지미 파라곤 1224호
- TEL : 02)761-0410    FAX : 02)785-6870
- 조직위원장 / 학운    추진위원장 / 덕산
- 집행위원장 / 현별    사무 총장 / 능인
- 부산지부 : 부산시 연제구 연산 5동 1384-1 교수공제회관 807호
- TEL : 051)852-2235    경제협력단체장 / 전창규